

#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Urgent issues for our generation

우지환 | ㈜엑스퍼트벤처 건축사사무소

우리의 주변 환경은 안전한 건지. 살펴보면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1995년 6월 삼풍 백화점 붕괴,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방화, 2008년 1월 이천 냉동창고 화재, 2008년 2월 승례문 방화사건과 크고 작은 사건에서 얻은 교훈도 있지만 최근에 발생한 한수원의 납품 비리사건은 어떤 인재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을 가져올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는 아직도 많은 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예상과 추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한 우리의 불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104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이하였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앞으로는 점점 피할 수 없는 가뭄과 한파와 홍수에 의한 자연재해의 심각성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앞으로 2011년 7월 우면산 붕괴와 같은 천재가 아닌 인재가 미연에 방지할 방법과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탁상공론으로 그 대책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싱가포르의 작은 국토 면적에 수자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척박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토양의 3분의 2가 물을 모을 수 있도록 17개의 저수지를 설치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빗물을 수집하고 저장된 빗물은 처리 과정을 거쳐, 배수설비·운하·강 및 우수 집수정으로 이뤄진 네트워크를 통해 싱가포르를 푸른 정원과 깨끗한 물의 도시로 탈바꿈 시켰다.

일본은, 연평균 강수량 2,000mm로 세계 평균인 973mm의 배 이상 훌쩍 넘는다. 우리나라 강수량 1,283mm보다도 50% 이상 물이 많은 환경이다. 그렇다고 비가 우리나라처럼 주로 여름에만 오지 않고 초봄부터 늦겨울에 이르기까지 사계절 쉬지 않고 비가 내린다. 이런 환경에서 일본은 수해가 심한 지역의 해결을 위해 대규모 지하댐을 구축하여 여름철 가뭄에는 농사용이나 비상식수로 사용하고 홍수에는 비 피해를 최소화하며, 아울러 재난 방지인 화재 진압용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국가의 기반시설은 단기간에 이룩한 성과가 아님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가까운 이웃 국가들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홍수 또는 극심한 가뭄에 국민의 동요 없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가뭄을 대비하기 위하여 홍수 시 빗물을 저장할 시스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빗물이용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산발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국토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준비단계에서 세부 추진계획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근본 원인 분석과 절대적 필요성의 해소는 어느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차원에서 신중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와 정권의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시적 차원의 마스터플랜 확립이 절실하다. 이러한 준비와 실행이 이루어져야 체계

필자는 1992년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공학 석사학위를 받고 1994년 법인 설립이후 (주)엑스퍼트벤처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1년 동대학원에서 건축환경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한민국법원행정처 법원전문심리위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평가위원, 서울시 성동구 도시분쟁조정위원, 부천시 외부전문가감사위원, 한양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 겸임 연구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후손에게 물려줄 국가 기반시설 등의  
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참된 안전은  
현 세대가 후손을 위해 준비해야만 한다.

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됨은 물론 국민 모두의 동참으로 이어지게 된다. 나아가서 물 절약, 빗물저장이 아닌 빗물 절약이라는 차원으로 발전하여 국가의 이익으로 나타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확립된 마스터플랜은 정권이나 주무 책임자가 바뀌어도 꾸준한 보완에 의해서 완성을 해야만 한다. 자연재해에 대해 정부가 심사숙고를 통해 입안된 수많은 정책들. 그러한 정책의 집행은 정부와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관된 연속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뒤돌아보면 앞선 정권에 수립된 정책과 수년전 수립된 정책들이 정권 또는 주무 책임자가 교체됨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전면 수정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다. 이러한 정책의 전면 변경은 수없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원의 낭비와 에너지의 소비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는 곧 서민들의 힘겨움을 가중시키는 원초적 원인이다.

내가 만든 국가 정책이 나 혼자만의 전유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가정책이 정치적인 놀음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싸움들이 늘 반복을 거듭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유심히 살피고 정책의 제안이나 입안은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정책의 전면변경 보다는 그 시대에 맞게 변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제시에 의한 보완과 재확립을 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더욱 중요시 생각해야 할 것은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수립된 정책의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다.

선거를 통하여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되어 나를 일하게 하였듯이, 선거 당시 간절하고 소중했던 한 표를 원했던 당시의 민심을 떠올려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내게 주었던 작은 힘들이 진정 원했던 것과 일치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주장하고 시행하려는 정책의 입안이나 집행이 과연 올바른 것이며 국민과 그리고 후손을 위한 것인지 고민을 하여야 한다. 단순한 나의 업적으로만 내 명분에 국한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정책입안자나 결정자들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리의 근대사는 일본의 찬탈과 가깝게는 6.25전쟁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전쟁과 격변의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픔을 견디며 꾸준히 발전되어왔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는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곡식의 소출은 1년을 투자해야 하고, 나무의 성장은 10년을 투자해야 하며, 인재의 양성은 100년을 투자해야 한다는 교훈을 거울삼아야 하듯, 우리는 지금 전국의 도로와 교량, 항만, 열악한 기반 위에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들, 자연재해인 홍수와 가뭄의 대책 등에 대하여 국가에게 과감히 투자할 것을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후손에게 물려줄 국가 기반시설 등의 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참된 안전은 현 세대가 후손을 위해 준비해야만 한다. 그들이 살아가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번 결정된 정책은 세대를 초월하여 100년 아니 그 이상이 걸린다 할지라도 안전하고 값진 유산으로 후손에게 떳떳하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후손을 위한 우리의 부끄럽지 않은 지속가능한 대물림이 아니겠는가? ▣